

주요내용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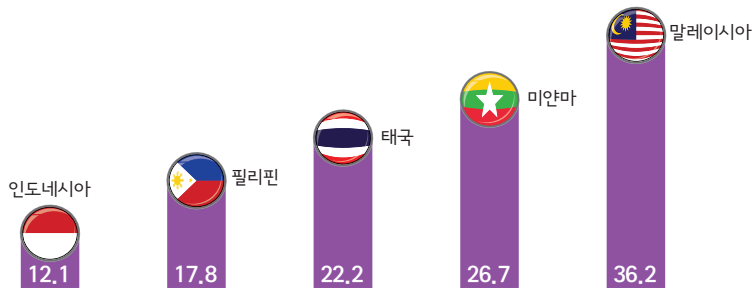
▶ 폰테라, 인도네시아 유제품 시장 진출

- 뉴질랜드의 최대 유제품 제조업체인 폰테라(Fonterra)가 인도네시아 요구르트와 치즈 시장에 진출할 예정이다. 폰테라의 현지 법인 폰테라 브랜드 인도네시아(PT Fonterra Brands Indonesia)는 최근 인도네시아 중산층의 증가로 유제품 시장이 성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.
- 인도네시아 요구르트와 치즈 시장의 성장률은 각각 연 32%와 8%에 이르고 있으며, 시장 조사가 끝나는 대로 신제품을 본격 시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.
- 이미 여러 업체가 인도네시아 요구르트 시장에 진입해 상품 다양화, 저가 전략을 펼치고 있으며, 인도네시아 소비자의 건강에 대한 관심이 유제품 시장의 성장을 뒷받침할 것으로 보인다.
- 또한 폰테라는 기존 호텔과 레스토랑, 카페 등에서만 판매했던 치즈 제품을 소매 시장으로도 유통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.

▶ 인도네시아 유제품 시장 전망

- 폰테라 브랜드 인도네시아 보고서에 따르면, 인도네시아 유제품 시장은 2015년부터 연 13%의 성장세를 보이고 있으며 2019년에는 44조 루피아(약 3조 8,280억원) 규모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.
- 현재 국민 1인당 우유 소비량은 연 12리터로 말레이시아 36리터, 태국의 22리터에 비해 매우 적지만, 매장의 증가 추세와 중산층의 부상으로 향후 소비 증가가 기대된다.

I 아세안 주요 국가별 1인당 우유 소비량 I



* 출처 : 자카르타경제일보 2017.1.27., IPSOS

시사점

- 인도네시아는 대부분의 우유생산 농장이 자바섬(자카르타 위치)에 집중되어 있고, 현재 우유 생산농장이 부족하여 우유 소비량의 3분의 2 이상을 외국으로부터 수입하고 있다. 우유 주요 수입국은 미국, 호주, 뉴질랜드이며 한국산 우유는 현재 검역협정을 진행 중에 있다.
- 향후 인도네시아 유제품 수출을 염두하고 있다면 사전에 할랄인증을 받아야 하며 인도네시아 우유시장에 대한 면밀한 조사 또한 필요할 것이다.